

# 정례브리핑

2020.9.7(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축사를 하였고, 10시부터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내일 9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오전 10시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을 예방하여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예방은 일정만 공개됩니다.

다음은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보고, 9월 10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장관님께서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개회사 통해서 CVIP라는 다소 생소한 구상을 언급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이게 오늘 처음 이 개념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통일부 내에서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지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오늘 장관께서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개회사에서 CVIP를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반세기를 넘는 분단구조를 허물기 위해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견고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 상태를 구축하는 것이 긴급하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질문 주신 것처럼 이 CVIP라는 용어는 2018년, 즉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한국포럼 축사에서 사용한 적이 있고, 여러 언론 등에서도 다뤄진 용어입니다. 이것은 CVID가 2002년도 부시 행정부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CVI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VIN도 있었고 CVIG도 있었고 CVIP도 있었습니다. CVIP는 평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8월에 지원을 결정했던 WFP 1,000만 달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난주에 작년에 지원 결정했던 5만 t, 쌀 5만 t에 대해서 추가진행이 안 될 경우에 반환을 협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셨는데,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8월 지원을 WFP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협약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WFP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WFP 측에 송금이 되었고 기타 사업 추진은 WFP 측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올 연말 일정한 시점까지 그 사업이 미집행될 경우에 정부가 환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북에 있는 WFP 사무소를 통해서 추가협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은 그 이후에 진행됐는지 여부는 모르고?

<답변> 그 상세한 사업의 상세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질문> 이인영 장관께서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셔서 미국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거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 사실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소문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함경도 수해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에서 바로 지역위원장을 교체하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게 이례적인지 이런 정도의 행보를 보일 정도로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수해피해 현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북한 내부의 필요에 따라서 지방에 개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태풍 피해 관련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지방에서 현지에서 개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이 지난주에 NCKK 방문하셔서 한미동맹 관련해서 언급하신 게 있는데 이게 미 국무부에서는 약간 좀 다른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NCKK 예방에서 나온 그 발언은 냉전시대에 출발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서 출발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추구라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장관도 평소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그때 발언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주도하는 평화동맹으로 진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물물교환 관련해서 이런 저런 혼선도 있었고 한데, 진행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몇몇 업체와 지금 요청이 와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몇 개 업체에서 요청이 왔고, 혹시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을 밝힐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물물교환 관련해서는 지금 해당 실국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개의 업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검토 중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그럼 개성고려인삼주식회사와의 교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답변> 그것도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쌀 5만 t 관련해서 그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올해 안에

지원이 안 될 때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금 북한 같은 경우 며칠 전에 유엔사무총장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의 어떤 경제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받지 않은 그 배경에 대해서 코로나 이런 관련 문제인지, 아니면 수해 복구 때문에 정신이 없는지 아니면 다양한 우리나라의 관계 때문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이 외부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분석과 추정 차원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도 그 관련 상황을 주시하면서 상황을 파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